

News

금감원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점검 착수...현장검사도 예고

연합뉴스

금감원,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

코로나禍 자영업자 대출 과속...5대 은행 올해에만 22조 폭증

데일리안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9,258억원인 것으로 집계...작년 말(239조4,193억원) 대비 21조5,065억원(8.98%) 증가한 규모
지난해 1년간 증가액이 16조3,637억원(7.3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이를 넘어서...

추석 맞은 은행권, 특별자금 푼다... 4대시중銀 15조원씩

파이낸셜뉴스

4대 시중은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 12~15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지원자금을 각각 공급
일시적으로 자금난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지원...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신규 대출을 지원하거나 만기 연장,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

개인형 퇴직연금 30조 시대...시중은행, 고객 모시기 쟁탈전

데일리안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형IRP 적립금은 29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년 말 대비 4조1,000억원(16.1%) 늘어난 규모...1년간 증가액(6조2,000억원)의 3분의 2가 6개월 만에 증가
은행들이 개인형IRP 고객 잡기에 나선 이유는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8월 자보 손해율, 집중호우 속에도 선방

파이낸셜뉴스

6월 손보업계에 따르면 4대 손보사의 8월 자보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5.1~85.5%...코로나19의 재확산과 긴 장마로 자동차 이용량이 줄면서 손해율이 줄었다는 분석
8월 휴가철과 함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까지 있었지만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최대 10%p 감소

생·손보험회, 보험설계사 대면영업 자제 13일까지 연장 권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 자제도 13일까지 연장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회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 자제를 13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

보험사 실손보험 전환작업 가속

디지털타임스

현대해상, 기존 가입자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 가입된 동인 담보군만 적용됐지만 이러한 전환 조건을 삭제했고, 중대질환자도 신실손 일반상해의료비 전환 가능
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해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판단...착한실손 계약 전환 제한 대상 완화해 보험료 갱신 시점에 맞춰 구 실손을 신 실손으로 갈아타도록 유도

IBK證, 증권사 최초로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40% 가지급 결정

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 4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원금 40%를 선가지급하기로 의결...판매 증권사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안 처음으로 결정
해당 펀드를 판매한 유안타증권(159억원)과 하나금융투자(121억원), NH투자증권(71억원) 등도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